

기사연
리포트
17호

“줄어드는 종교인구와 한국교회”



권 두 언) 줄어드는 종교인구와 한국교회 _ 김상덕 3

줄어드는 종교 인구,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을 중심으로 _ 구현우 5

한국갤럽의 “2021년 한국인의 종교 및 종교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소고:
비종교인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_ 유광석 14

코로나 이후, 한국 그리스도인의 종교성 변화와 교회의 과제
2021 한국갤럽 종교 조사를 중심으로 _ 정경일 22

기사연 소식 3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권 두 언

줄어드는 종교인구와 한국교회

김 상 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교인 감소, 가나안 성도 현상, 텅 빈 주일학교, 공공성의 위기 등 지난 십 수 년 동안 한국교회의 위기를 나타내는 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식과 함께 살펴볼만한 의미 있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지난 5월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1984년부터 국내 종교인구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종교인구 감소인데 흔히 ‘종교 없음’(non-religious)에 해당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60% 가량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역시 개신교인의 감소인데 2014년 이후로 개신교 비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생된 질문들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통계결과는 숫자 이지만 그 이면에 담긴 행간과 통찰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기사연 리포트> 17호에서는 한국 사회 속 줄어드는 종교인 비율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세 가지 분석의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현우 연구원은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런 변화와 연관된 세 가지 종교사회학적 이론을 소개합니다. 둘째, 유광석 교수는 종교인구 조사결과를 어떻게 읽어 낼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며, ‘비종교인’과 ‘종교성’을 구별하고 전통적 종교인의 범위보

다 폭넓은 의미의 종교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일 박사는 현 상황을 탈종교화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이 현상은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특히 청년 세대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번 통계 결과는 한국교회가 귀기울여야하는 현상이자 한국교회가 변화해야 하는 사회적 요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연 리포트〉 17호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깊은 고민과 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줄어드는 종교 인구,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을 중심으로¹

구 현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줄어드는 개신교인 비율, 떨어지는 교회 호감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한국갤럽)에서 지난 5월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은 종교계 전반과 한국교회가 외면하던 현실을 드러내었다. 급격하게 하락한 종교인의 비율, 특히 개신교인의 비율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존재하던 한국교회 위기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었다.²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개신

1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은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18일~4월 7일에 제주 제외 전국에서 면접조사원 설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본 오차는 $\pm 2.5\%$ 포인트이고 95% 신뢰수준이다. 본 리포트에서 소개되지 않는 조사 결과는 아래 링크들에서 확인 가능하다:

(1) 종교 현황: 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 종교에 대한 인식: 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9

2 물론 이번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가 한국인의 종교성을 충분히 계량화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 갤럽의 기술적, 통계적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종교인의 종교 참여를 비롯한 종교 현상은 과학적으로 수치화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 반화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이러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언어로만 설명되던 현상을 눈에 보이는 수치로 표현한 한국 갤럽의 조사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판단, 본 리포트에서는 조사 결과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 이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종교”가 지니는 한계와 해석상 유의점은 이어지는 글 “한국갤럽의 ‘2021년 한국인의 종교 및 종교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소고: 비종교인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유광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인의 비율은 2021년 조사에서 17%로 하락했는데 이는 2014년의 21% 대비 19% (4%p) 낮아진 수치이고 1984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표1 참조).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종교 없음
1984년	17%	6%	19%	3%	56%
1989년	19%	7%	21%	2%	51%
1997년	20%	7%	18%	1%	53%
2004년	21%	7%	24%	1%	47%
2014년	21%	7%	22%	1% 미만	50%
2021년	17%	6%	16%	1% 미만	60%

* 표1. 종교 분포 1984-20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한국갤럽은 비종교인의 개신교 호감도 또한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발표했다. 2004년과 2014년에는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응답자 중 10% 이상이 개신교에 호감이 있다고 밝혔으나, 2021년에는 6%만이 개신교를 자신의 호감 종교로 꼽았다(표2 참조). 이는 2021년 비종교인의 20%와 13%가 각각 불교와 천주교에 호감이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이며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행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신교 호감	천주교 호감	불교 호감	호감 종교 없음
2004년	12%	17%	37%	33%
2014년	10%	18%	25%	46%
2021년	6%	13%	20%	61%

* 표2.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사실 이번 한국갤럽의 종교인 비율 감소 발표가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2016년 12월 발표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서도 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2015년 당시 인구의 20%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해당 자료에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전체의 43.9%를 차지해 종교가 없다고 답한 56.1%보다 적게 나타났고, 이는 전수조사로 실시된 2005 인구주택총조사 때의 52.9% 보다 9%p 낮은 수치였

다.³ 하지만 당시 개신교인 수는 2005년 대비 123만 여명 증가해 전체 인구의 19.7%를 차지했고, 정부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한 이래 처음으로 불교(15.5%)를 앞지르고 국내 신도 수 1위 종교가 되었었기에 한국교회 위기 담론은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의 교세 통계에서 교인 수 감소가 보고되기 시작했고,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종교 인구 감소의 흐름을 개신교도 비껴가지 못했음이 드러났다.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와 대중의 무관심

한편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조사는 응답자들의 종교성과 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크다. 자신이 속하거나 따르는 종교가 무엇인지 만을 단편적으로 묻는 통계청 조사와 달리 한국갤럽은 추가적인 질문들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비종교인의 82%가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은 뜻하는 바가 크다(표3 참조). 이에 반해 개신교인의 80%는 여전히 종교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종교의 영향력과 필요성에 대한 비종교인과 종교인, 특히 비종교인과 개신교인의 이해의 간극이 넓게 벌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또 비종교인의 89%는 종교가 개인 생활에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를 통해 비종교인의 대다수는 종교의 존재 가치와 역할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 참조).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비종교인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	80%	65%	59%	18%
‘도움을 주지 않는다.’	20%	35%	31%	82%

* 표3.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3 자세한 수치는 국가통계포털 (kosis.kr)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280119395&markType=S&itmNm=%EC%A0%84%EA%B5%AD.

4 그 예로 예장 합동, 통합, 고신, 기장의 2020년 총회에서 각각 3.8%, 1.9%, 2.6%, 5.9%의 교인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현수, “장로교 목사 늘고 교인 줄었다,” 〈인천기독교신문〉(2020년 10월 19일) iccnews.co.kr/archives/3075.

	‘나의 개인 생활에는 종교가 (매우+어느 정도) 중요하다.’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비종교인
1984년	97%	97%	88%	48%
1989년	97%	96%	78%	44%
1997년	96%	89%	77%	39%
2004년	90%	82%	68%	29%
2014년	90%	81%	59%	30%
2021년	90%	85%	62%	11%

* 표4. 개인 생활 속 종교의 중요성 1984-20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반면 비종교인의 종교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비종교인의 19%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그 2배가 넘는 54%가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 종교를 찾지 않는다고 밝혔다(표5 참조). 게다가 관심이 없어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의 비율은 1997년 아래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는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비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대중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1997년	2004년	2014년	2021년
관심이 없어서	26%	37%	45%	54%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23%	14%	19%	19%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10%	18%	15%	8%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9%	21%	18%	17%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반대로	4%	2%	1%	1%
용기가 없고 부담이 되어서	4%	2%	2%	1%
기타/응답 거절	14%	6%	0%	0%

* 표5. 비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교인들의 교회활동 감소

끝으로 “한국인의 종교” 조사는 개신교인들의 종교 생활의 변화도 짚어내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 중 주 1회 이상 성경을 읽는 비율과 하루 1회 이상 기도하는 비율은 2014년 대비 각각 14%포인트와 15%포인트 감소하였다(표6, 7 참조). 또한 주 1회 이상 교회에 방문하는 비율은 2014년 80%에서 2021년 57%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표8 참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수치이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개신교인들의 종교 활동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추세가 뚜렷하다. 물론 성경을 읽는 횟수나 교회 참석 횟수 등이 개인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종교 활동 참여 빈도의 하락세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강조한 내용들에 반하는 것이어서 교회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불경 등을 읽는다.’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종교인 전체
1984년	45%	40%	11%	28%
1989년	50%	39%	8%	29%
1997년	50%	34%	9%	33%
2004년	49%	16%	9%	26%
2014년	56%	39%	11%	34%
2021년	42%	35%	3%	25%

* 표6. 종교인 중 주 1회 이상 경전 독서자 비율 1984-20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기원 한다.’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종교인 전체
1984년	63%	57%	16%	41%
1989년	68%	58%	14%	42%
1997년	64%	41%	11%	40%
2004년	59%	28%	14%	34%

2014년	52%	30%	8%	29%
2021년	37%	31%	5%	23%

* 표7. 종교인 중 하루 1회 이상 기도/기원자 비율 1984-20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당/교회/절에 간다.’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종교인 전체
1984년	62%	66%	10%	39%
1989년	73%	66%	4%	41%
1997년	72%	60%	1%	42%
2004년	71%	43%	4%	36%
2014년	80%	59%	6%	44%
2021년	57%	42%	1%	32%

* 표8. 종교인 중 주 1회 이상 종교시설 방문자 비율 1984-20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 발췌)

사회학 이론으로 읽기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교인구 감소는 뚜렷한 현상이고, 개신교도 그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 비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있지도 못한다. 게다가 개신교인들의 종교생활도 활동성과 적극성을 서서히 잃고 있음이 드러났다. 세속화. 일련의 내용들을 나열할 때 많은 이들에게 떠오르는 용어다. 사회과학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친숙한 이 단어는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과 막스 베버(Max Weber) 등의 19세기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등장했다. 그 후 유럽 사회에서 종교가 지니는 영향력 감소를 설명하는데 쓰이던 세속화 이론(Secularization Theory)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발표된 피터 버거(Peter L. Berger)의 초기 저작들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종교적 가치가 근간이 되던 사회나 집단에서 근대화 등의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면 종교

는 점차 그 영향력을 잃는다고 한다.⁵ 이러한 주장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기에, 피터 버거 이후에도 널리 알려져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세속화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근대화의 결과로 세속화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한국 사회의 상황이 전통적 세속화 이론의 예시로 이해되는 것은 어렵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이 사회를 지배하던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다양한 종교 전통이 공존하던 사회였다. 따라서 근대화가 종교의 입지를 위협한다는 단순한 도식은 한국 상황에 대입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 19세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래 이후 한국은 다종교 사회의 모습을 이어 왔고, 1960년대 이후로는 전통적 세속화 이론의 주장과는 반대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종교의 성장과 함께 해왔다. 한국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신도 수와 영향력을 잃은 종교 전통도 존재하지만, 개신교처럼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종교들이 많았다. 쇠퇴한 종교 기관들의 자리를 메우는 새로운 공동체들이 끊임없이 등장했고, 참여하는 인원은 적어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들도 있어왔다. 따라서 이는 1990년대 들어 자신의 초기 주장을 번복한 버거의 세속화 이론 비판과도 맥을 같이한다.⁶ 그의 말대로 종교와 근대화의 관계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성질의 것이고, 한국 사회는 19세기의 서구권 사회학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해서, 2010년 이후 두드러진 한국의 종교인구 감소도 단순한 세속화의 진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로 대표되는 세속화 이론의 반대론자들도 종교 인구의 감소가 세속화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사회의 근대화가 진행되어도 종교는 힘을 잃지 않는다.⁷ 그들은 설명 그 사회를 지배하던 전통적 형태의 종교의 외연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더라도, 종교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 영향력을 유지 혹은 확대한다고 주장한다.⁸ 이는 한국 교회 나아가 종교계 전체에 희망을 준다. 비록 한국교회

5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7), 105–26.

6 Peter L. Berger,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A Global Overview,” in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ed. Peter L. Berger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99), 2–4.

7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1–24.

8 Ibid.

가 직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수치들, 즉 교인의 감소, 비종교인들의 무관심, 그리고 개신교인들의 적극성 결여 등이 비록 종교와 교회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문 문항으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의 종교성과 종교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근대화와 경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전근대적 사회에서 강세였던 전통적인 모습의 종교 활동과 종교기관은 힘을 잃어도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모습의 운동과 공동체들은 발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을 제공한다.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와 로저 핀케(Roger Finke)는 인간에게는 지속적인 종교적 혹은 영적 욕구가 있고, 종교가 그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영향력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⁹ 어떤 재화를 구매할지를 소비의 합리성에 기인하여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일반적 모습처럼, 종교 구매자들도 종교를 갖을지 여부와 어떤 종교에게 향할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¹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종교 단체나 기관이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있다면, 해당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신도 수 감소, 비종교인들의 무관심 등의 현상도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종교의 모습이 있는데, 개신교회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교회가 사회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해서일 수도 혹은 오늘 사회와 대중이 바라는 종교의 모습이 기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면 그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대중이 바라는 모습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적 책임과 반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또 윤리적 고찰 없이 대중의 기호에 맞는 서비스만 제공했을 때의 위험성도 분명 조제한다. 하지만 교회가 오랜 세월 지켜온 신앙적 가치를 현 시대에 맞는 언어로 번역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제공한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긍정할 여지가 크다.

나가며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를 비롯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탈종교화의 시대의 도래와 교회도 그 흐름에서 비껴갈 수 없음을 알린다. 일부에서는 어두운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한쪽에서

9 Rodney Stark and Roger Finke, *Acts of Faith: Explain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193–217.

10 Ibid.

는 사회적 현상을 거스를 수 없다며 선교적 무기력증 증세를 보인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은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탈종교와 탈교회 현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종교가 설 자리가 없고 대안이 없는 온전한 세속화의 도래라고 치부 할 수는 없다. 교회가 이미 힘을 잃고 있는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에서 요구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테일러와 스타크, 핀케가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로서 그 영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갤럽의 “2021년 한국인의 종교 및 종교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소고: 비종교인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유 광 석

경희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한국갤럽에서 1984년부터 수행한 한국의 종교 및 종교인식에 대한 조사는 학문적으로 종교통계의 중요성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에 학계와 정부 관료는 물론이고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 모두에게 종교의 양적 및 질적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서 기여했고,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종교적 변화 추세와 현황에 대한 사회통계 자료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아쉽게도 본 조사결과가 외국어로 출간되지는 않아 한국의 종교통계자료를 요청하는 외국학자들과 외국 연구기관들에게 논자 역시 한국갤럽의 시기별 조사결과를 소개해주고 논자의 피상적 이해 수준에서 어렵게 설명해주곤 한다.

논자는 사회통계의 전공자도 아니고, 통계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겸비하거나 훈련된 사람이 아니어서 2021년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분석보

다는 해석적 차원에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귀하는 현재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와 같은 질문 그 자체, 그 선택지로서 ‘믿고 있다’ 및 ‘믿고 있지 않다’와 같은 응답 여부에 따라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종교인과 비종교인 비율의 시기적 변화 및 종교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인식수준의 변화에 대해 종교사회학적 관점, 특히 종교시장이론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 소고는 2021년 갤럽조사의 조사 방식이나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오류를 찾아내거나, 통계적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며 논자에겐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한다. 다만, 이 글은 사회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 복잡한 차원의 종교현상을 계량적으로 단순화하거나, 조사결과 그 자체 또는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거나, 외적 조건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화하는 등의 위험한 지적 편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본 조사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런 다양한 해석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II. 주요 조사결과에 대한 재해석

“비종교인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세속화를 의미한다.”

갤럽조사의 시기별 종교인구비율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한국성인의 종교인구비율이 2004년 54%, 2014년 50%, 2021년 40%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수많은 종교인들, 언론들 및 학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위기이자 한국사회의 세속화에 대한 통계적 근거로서 자주 인용되었고, 때로는 신의 피조물들이 타락해 가는(또는 인간중심적 가치에만 몰입해가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확신하는 신앙적 증거가 되었다. 다양한 이유로 사회통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정치, 경제, 보건, 복지 분야 등의 일반적 사회조사와는 달리 종교 영역의 사회조사는 본질적으로 계량화하기 힘든 응답자들의 비유형적이고 비정형화된 인식의 흐름들이 조사결과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사방식과 그 결과분석에서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간단히 말하면, ‘종교를 믿고 있다(또는 믿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올해 소득이 5천만 원 미만(또는 이상)이다’와 같은 응답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우리는 다시금 ‘비종교인의 증가는 세속화의 증거’라는 주장 (일명, 세속화명제)에 대한 재성찰을 필요로 한다.

[표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종교인구의 조사시기별 변화

Year Religion	National Demographic Census			
	2015	2005	1995	1985
Buddhism	7,619,332 (29%▽)	10,726,463 (3.9%△)	10,321,012 (28%△)	8,059,624
Protestantism	9,675,761 (12%△)	8,616,438 (1.6%▽)	8,760,336 (34%△)	6,489,282
Catholicism	3,890,311 (32%▽)	5,146,147 (74%△)	2,950,730 (61%△)	1,865,397
Confucianism	75,703 (28%▽)	105,575 (50%▽)	210,927 (56%▽)	483,366
Cheondokyo	65,964 (44%△)	45,835 (62%△)	28,184 (2.2%▽)	28,818
Daesoonjinlihoe	41,176 (33%▽)	(Jungsankyo 35,550)	62,056	no question
Wonbuddhism	84,141 (35%▽)	129,907 (49%△)	86,823 (6%▽)	92,302
Daejongkyo	3,101 (17.6%▽)	3,766 (50.4%▽)	7,603 (31%▽)	11,030
Others	98,185 (39.7%▽)	163,085 (4.1%▽)	170,153 (3%▽)	175,477
Religious Population	21,553,674 (43.9%)	24,970,776 (53%)	22,597,824 (50.7%)	17,203,296 (42.5%)
Total Population	49,052,389	47,041,434	44,553,710	40,419,652

[표 1]에서 종교인구의 변화추세를 살펴보자. 1500명 표본조사 방식에 기초한 갤럽조사와 달리 전수조사 방식에 기초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인구비율 역시 42.5%(1985년), 50.7%(1995년), 53%(2005년), 43.9%(2015년)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표 1]에서 보듯이 개신교 인구는 2005년 1.6%만큼 감소하다 2015년 12%나 증가하면서 2005년 결과를 두고 종교인들과 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개탄 하던 사회 및 개인의 세속화 예상을 크게 비껴갔다. 게다가 [표 1]에서 적색(증가) 및 청색(감소)으로 표시된 시기별 종교인구 변동 폭을 보면 한국의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 역시 십 년을 주기로 그 변동 폭이 작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전체 종교인구는 물론이고 (유교, 대종교, 기타 범주를 제외하면) 개별 종교들 역시 하나의 방향으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 증감을 너무 크게 반복해 왔다. 마찬가지로 이전의 갤럽조사결과¹를 시기적으로 좀 더 확장해보면 44%(1984년), 49%(1989년), 47%(1997년), 53% (2004년), 50%(2014년)으로

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19.

시기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기로 제한하면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는 최근 갤럽조사에서 분명해 보인다. 다만, 2021년 조사결과는 아직 다른 사회통계조사들로 충분히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우리 사회에 제공했을 뿐이며 그 자체로서 한국사회 또는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증명하는 것으로 단순화될 수는 없다. “2021년 갤럽조사결과에서는 비종교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과 “2021년 갤럽조사결과는 세속화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사실과 주장 간에는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다. 특히, 개신교는 불교 및 천주교와 함께 한국 전체종교시장의 약 98%를 꾸준히 점유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향유 해 온 종교라는 점에서 언제든 새로운 신자 유입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종교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종교(religion)’와 ‘종교 성(religiosity)’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갤럽조사는 ‘귀하는 현재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라고 묻는 반면에, 인구주택총조사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는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묻는다. ‘종교’를 묻는 설문들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좀 더 엄밀히 생각하면 각각의 질문 내에 적지 않은 가치판단이나 이론적 가정들이 숨어있다.

특히, 갤럽의 설문은 인구센서스나 KGSS와 다른 이론적 가정, 즉 종교와 믿음의 필연적 결합을 가정함으로써 갤럽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제도종교에 속한 사람들만을 종교인으로 잡는 체계적 편향성(systemic bias)을 갖고 있다(한국갤럽 2015: 16). 예를 들어, 내적 믿음은 없지만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 믿음에 기초하기보다 아이들 교육이나 정서적 발달을 이유로,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배우자, 부모형제, 친구, 자식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그들만의 다양한 이유로 가끔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실제로 북미교회들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다).

정반대의 경우도 훨씬 더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관찰될 수 있다. 폐쇄적인 교회조직, 권위적인 목사의 리더십, 불편한 교우들과의 관계에 염증을 느끼고 기성적 제도종교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종교적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즉 ‘가나안 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응답이 무엇이든 우리는 단 하나의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그들 모두를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기계

적인가정인지를 깨달아야 한다.²

통계적 가정과 달리 현실 속 인간의 종교성은 현재 종교를 믿고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단순한 질문 하나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상하며, 상호작용적이고, 맥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적 진실을 찾기 위해 변수들간 종합적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도 이러한 복잡성을 어떻게든 계량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며, 응답자 한 사람의 종교성을 파악하는 것조차 훨씬 더 복잡한 통계분석과정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은 통계적 편의를 위한 것이며, ‘귀하는 현재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 여부를 기준으로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의 비율은 그들의 종교성을 포괄적 및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에 기초한 결과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

“남성보다 여성, 20~30대보다 고연령일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갤럽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종교인구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하지만, 1984년부터 2004년 조사까지는 20대를 18~24세 구간과 25~29세 구간으로 양분하고, 2014년 조사에서는 다시 19~29세로 양 구간을 통합하면서 조사방법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특히 2004년까지는 50대 이상 인구를 하나의 구간으로 설계하여 60대 및 70대 이상 노령인구들의 종교성을 소홀히 다루는 듯했다. 2014년부터 60대 그리고 다음 조사에서는 70대까지 연령 구간을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의 재설계라고 생각한다.

갤럽에 따르면, 2021년 조사결과의 주요한 발견은 고령인구가 젊은 세대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며, 또한 20~30대 인구의 “탈종교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고 한다.³ 이러한 갤럽의 요약분석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면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이 ‘종교’를 대거 이탈했고 그들의 ‘종교성’은 세속적 가치로 다 채워진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선의 종교지도자들은 이것이 세태를 정확히 반영한 조사결과라고 믿고, 평신자들의 종

2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출고를 참조: 유광석. 2021.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문항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사회』 35(2):235~364.

3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종교현황.” (2021.5.18일 공개)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021년 8월 10일 접속)

교적 각성을 촉구하고, 타락해가는 젊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물적 및 영적 자원을 동원해야 할 위기의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어떤 종교인들은 이러한 세태가 코로나사태와 함께 인류의 종말론적 결말을 계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종교사회학자로서 위 조사결과가 학문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발견인지 강한 의문이 남을 뿐만 아니라 연령별 종교성에 대한 학문적 해석에 대해 다시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50년 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Gary S. Becker)의 가정생산모델(household production model)을 종교시장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가정 경제가 세속적 소비와 내세적 소비에 투자할 시간과 재화를 일생 동안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분석한 아지지-에렌버그(Corry Azzi and Ronald G. Ehrenberg)의 논문에서 연령효과(age effect)로 규명된 바 있다.⁴ 간단히 요약하면, 그들은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종교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재화(또는 돈)를 투자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종교활동의 한계생산이 나이의 증가로 감소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은 노인의 교회참석률이 임금상승률의 함수로써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자나 노인의 경우 좀 더 시간집약적 방법으로 종교활동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⁵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서비스 참석률이 높은 것은 사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일반적 경향이다. 갤럽조사는 60대 이상 연령구간에서 이러한 일반적 종교성을 좀 더 명확하게 재확인했을 뿐이다.

다만, 해석상 주의할 것은 노령인구의 종교참석률이 높다고 해서 또는 청년 세대의 종교 참석률이 낮다고 해서 ‘노령인구의 종교성이 청년세대보다 높다’거나 ‘청년세대의 종교성이 감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종교참석률은 종교성을 측정하는 수 많은 지표들(종교참석률, 기도, 현금액, 교회봉사, 교우관계, 경전의 이해도, 정치경제적 태도, 가족환경, 일상생활태도 등) 중 하나의 척도일 뿐이며, 종교성을 평가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도 아니고 최고의 기준도 아니다. 미국의 조사결과에서는 청년층의 종교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대부분의 개종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소득대비 현금 비율과 경전에 대한 이해도가 소속종단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4 Azzi, Corry and Ronald Ehrenberg. 1975. “Household allocation of time and church attend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3):27–56.

5 유광석. 2014. 『종교시장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p.58.

갤럽조사결과를 이해할 때 이러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의 종교참석률이 낮고, 종교를 믿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낳는다. 그러한 조사결과를 단순히 청년세대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청년세대의 종교성, 아니 인간의 보편적 종교성을 양적으로 너무 간단히 이해하는 것이다.

비종교인 (또는 무종교인)의 종교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최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⁶ 간단히 말하면, 비종교인들이 모두 반종교적이거나 종교에 무관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령, 그레이스 데이비(Grace Davie)가 영국인의 종교성으로 표현한 ‘종교적 참석 없이 기준의 종교적 실천과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believing without belonging)⁷, 기성종단의 권위주의나 물질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제도종교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교적 의식과 태도가 개인의 삶 속에서 뚜렷하지만 자신을 유교인이라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심지어 반종교적인 무신론자들조차 일정한 신념(athesim)을 갖고 있고, 과학적 합리성을 신봉하는 과학주의(scientism)조차 하나의 종교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종교성이란 기본적 인간성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청년세대의 새로운 종교성을 더 사려 깊고 성찰적인 자세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없다면 청년세대의 종교성은 아틀란티스의 신화처럼 영원히 심해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맷는 말

지면의 한계로 갤럽조사결과의 해석이 얼마나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아쉽지만, 위에서 나는 해석을 위한 개념적 전제로서 ‘종교’와 ‘종교성’의 구분을 강조했다. 좀 더 엄밀히 고찰하면, 세속성(secularity)과 종교성(religiosity)의 경계 조차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개념들이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종교 영

6 유광석. 2017. “종교없음 인구의 종교성.” 『한국사회와 종교학』. 서울대출판문화원. pp. 96-121.

7 Grace Davie. 1994. Religion in Britain since 1945: Believing without Belonging. Cambridge, Mass.: Basil Blackwell.

역의 용어들은 늘 중첩적이고 다의적이고 모호한 경계를 갖고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종교적이다’ 또는 ‘한국사회는 미국사회보다 더 세속적이다’라는 등의 표현은 성(the sacred)과 속(the profane)의 상대적 정도를 대립적 관점에서 인식한 것일 뿐, 성과 속, 종교성과 세속성의 통합적 본질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사회조사결과를 이해한다면 사실에 대한 편견과 왜곡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A 교회에서 나는 신실한 교인으로 평가받지만, B 교회에서는 주변 교우들부터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자주 경험하고, A 종교에서는 한낱 바위조각에 불과한 것이 B 종교에서는 신의 계시를 받은 우주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시간, 장소, 생물, 무생물, 인간, 사회, 국가 등 하늘 아래 모든 세상만물과 세상만사가 때로는 세속계에, 때로는 종교계에 임재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세례를 받아 나의 종교적 소속이 무종교에서 A 교회 교인으로 되었다고 해서, 나의 내적 종교성이 무에서 유로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적으로 그것은 유의미한 변화일 수 있지만, 적어도 종교사회학적 이론에서 양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코로나 이후, 한국 그리스도인의 종교성 변화와 교회의 과제 :

2021 한국갤럽 종교 조사를 중심으로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여는 말 : 변화 속의 종교

살아 있는 것은 변화한다. 변화를 멈추는 순간 생명체는 죽고 만다. 종교도 시간 속에서 발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생명체다. 변화는 성숙의 과정이기도 하고 쇠락의 과정이기도 하다.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나기도 한다. 변화가 야기하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변화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한 변화는 피할 수 없기에 개인도 사회도 종교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시대에 따른 한국종교의 변화를 보여주는 조사는 생각보다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다. 정부 차원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종교 관련 항목이 처음 포함된 때는 1985년이었다. 민간 차원의 조사도 있어 왔는데, 그중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한국갤럽’)는 정부보다 한 해 빠른 1984년부터 한국인의 종교 실태 및 종교관, 가치관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에 이어 2021년까지 총 6회 실시한 조사는 약 37년 동안의 한국종교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전개된 한국 개신교의 변화는 매우 역동적이다. 1980년대까지 급성장하던 개신교는 1990년대 이후 정체 또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가 신자 수 967만6천 명으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최대 종교’가 되었다. 유난히 뜨거운 개신교의 선교열을 생각하면 범교회 차원의 축제나 기념 예배가 있었을 법도 한데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아마도 당시 개신교 각 교단의 자체 조사 결과는 교세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상의 차이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은 유지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탈하는 소위 ‘가나안(안나가) 신자’ 현상이 개신교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개신교 종교 생활과 문화의 세대 간 편차도 커졌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악화되었다. 오늘의 한국 개신교는 변화의 폭풍 속에 있다.

지금의 변화는 한국 개신교를 파국으로 밀어 넣는 위기일 수도 있고 쇄신으로 이끄는 기회일 수도 있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외적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신교 주체의 의식 전환과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2021년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현황〉과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중에서 개신교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개신교를 새롭게 할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탈종교화의 가속화, 둘째, 청년 세대의 무종교성, 셋째, 종교의 사회적 공공성 요구다.

1. 탈종교화의 가속화

한국사회에서 비종교인 수가 종교인 수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한 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상으로는 2015년부터다. 2005년에는 종교인이 52.9%였고 비종교인이 47.1%였는데, 10년 뒤인 2015년에는 각각 43.9%와 56.1%로 크게 역전된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014년에는 종교인 대 비종교인 비율이 50% 대 50%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번 2021년 조사에서는 40% 대 60%로 비종교인 증가 추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 외에도 여타의 최근 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탈종교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탈종교화’의 의미를 한국사회와 종교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대 한국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동을 상대적으로 짧은 시대 동안 ‘압축적’으로 경

험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종교도 탈종교화를 단기간에 매우 복합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의 탈종교화는 서양의 탈종교화 현상과 차이와 공통점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양에서의 탈종교화는 기본적으로 ‘세속화’(secularization) 형태를 보인다. 이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 세계(Christendom)’가 실재했던 서양에서 중세까지 지배종교였던 그리스도교가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계몽주의와 과학에 자리를 내어주며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된 것을 의미한다. 즉 종교적(기독교적)이었던 서양 사회가 세속화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지배종교가 없었던 현대 한국사회에서 세속화 의미로서의 탈종교화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조선조 오백 년 동안 주변화되었다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러 재활성화된 불교, 같은 시기에 새롭게 발흥한 동학, 원불교, 대종교 등 민족종교,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지 불과 일백 년 만에 빠르게 정착하고 성장한 그리스도교가 현대 한국사회를 ‘종교화’한 것일 수도 있다. 피터 버거 등 세속화 이론가들도 이미 1990년대에 비서구 세계에서 종교가 부흥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신들의 세속화 테제를 ‘탈세속화(desecularization)’ 테제로 수정한 바 있는데, 현대 한국사회의 종교 변동은 탈세속화 현상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회가 종교화 또는 재종교화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종교도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갤럽의 이번 종교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도종교의 집단주의적 통제로부터 개인 신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다. 오늘의 신자들은 종교의 내적 가르침이나 영성에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종교의 외적 교리나 의례나 제도에 관해서는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더 정확한 개념은 탈종교화보다는 ‘탈제도종교화’일 것이다.

탈제도종교화는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 “소속하지 않고 신앙하는”(believing without belonging), “여러 종교에 속하는”(multiple religious belonging)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종교에 대한 근원적 부정이 아니라 단지 외적 소속이나 제도에 관심이 없는 “무종교인”(the nones)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를 벗어나 “세속적 영성”(secular spirituality)을 추구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제도종교화는 종교들 사이의 전통적 경계도 약화시켜서, 오늘의 종교인은 다른 종교 전통의 지

성과 영성을 자유롭게 체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신교인도 많다.

탈종교화 또는 탈제도종교화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한국종교는 개신교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 항목에서 개신교 비율이 52%로 불교 38%와 천주교 11%보다 현저히 높다. 이러한 ‘탈개신교’ 현상은 청년세대에서 더 두드러진다. 20대의 경우 개신교가 12%로 불교 1%와 천주교 1%보다 훨씬 높고, 30대의 경우도 개신교가 18%로 불교 3%, 천주교 4%보다 높다.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한국 개신교인의 탈제도종교화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나안 신자’ 현상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탈종교화 현상과 관련해 그리스도인이 성찰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탈물질주의의 예외’ 현상이다. 1981년 시작한 국제적 장기 학술 프로젝트인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나면 그 사회 구성원은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비약적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주의적 경향을 예외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WVS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물질주의가 위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과 냉전, IMF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적 삶의 방식의 내면화 등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상이 전쟁 같은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국인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계속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탈물질주의와 종교를 등치 관계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둘은 물질주의적, 세속주의적 가치와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최소한 같은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탈종교화 또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종교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의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교도 물질주의적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웃종교의 문제는 차치하고, 개신교 안에 오랫동안 지배적 신앙 행태로 굳어져 온 개인적 기복주의와 집단적 성장주의는 지극히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다. 물질과 권력을 욕망하는 데서는 대형교회와 중·소형교회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신이 ‘하느님’인지 ‘맘몬’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물질적, 세속적 가치가 종교적 가치와 대척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탈물질주의의 예외를 보이는 한국사회는 매우 비종교적이며, 역설적으로 한국종교도 비종교적 아니 ‘반종교적’인지도 모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시화되고 있던 탈종교화, 탈제도종교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평신도의 이탈을 어느 정도 통제하며 관리하고 있던 제도종교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재난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순식간에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교권 세력의 지배로부터 갑자기 자유로워진 평신도는 더욱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지적, 영적, 윤리적 모험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탈제도종교화는 종교의 외적 성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위기이지만 주체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코로나 이후 종교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현재의 탈제도종교화가 물질주의적 세속화나 개인주의적 사사화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성과 영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청년세대의 무종교성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 중 종교인은 22%이고 30대는 30%다. 2030세대 또는 밀레니얼+Z세대(MZ세대)의 종교인 비율 감소세는 무척 가팔라서, 2014년 조사 이후 불과 7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다. 종교별로 보면 20대 종교인 중 개신교인이 14%이고 30대 중에는 19%로, 불교(20대 4%, 30대 6%)와 천주교(20대 3%, 30대 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청년세대 전체의 종교인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개신교도 청년세대의 탈종교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세대가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20대 64%, 30대 5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20대 18%, 30대 20%다. 전자가 종교의 지적, 영적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후자는 종교의 윤리적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마디로 청년세대의 무종교성이 보여주는 것은 종교의 총체적 위기다. 종교에 대한 청년세대의 무관심과 불신은 종교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 종교에 무관심한 2030세대가 10년 뒤, 20년 뒤에 종교에 무관심한 3040, 4050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인의 수적 감소나 종교활동의 약화 같은 외적, 구조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의 종교가 고통받는 인간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본래 종교의 출발점은 고통의 현실이고 목적지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집단 중 하나인 청년세대가 종교에 가장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종교의 존재이유를 위협하는 근본적 위기일 것이다. ‘노력’ 정도가 아니라 ‘노오력’을 해도 삶의 조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Hell-조선’, ‘n포 세대’, ‘흙수저’와 같은 고통과 절

망의 키워드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는 오늘의 2030세대가 정작 고통으로부터 구원의 길이라는 종교에 무관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현 청년세대의 성장 과정에서 종교 생활이 ‘일시정지’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30세대는 앞서 언급한 ‘탈물질주의의 예외’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에 태어나 청소년기에 신자유주의적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무한경쟁을 원리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어려서부터 삶의 원리로 내면화해야 했던 청소년들이 종교적 감수성을 기를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종교인 중 예배 참석 등 정기적 종교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주일성수’가 교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화되어 있는 개신교 신양풍토에서조차도 청소년 시기의 종교생활을 일시정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불가피한 일로 허용하는 분위기였다. 중학교 2, 3학년만 되어도 공부가 신앙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해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학원이나 도서관에 내려 주고 자기들만 교회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주일 아침 풍경이 되었다.

청년세대의 무종교성을 심화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세대에게와 마찬가지로 2030세대에게도 종교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는데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종교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2030세대 당사자 이면서 연구자인 임명묵은 ‘90년대생’이 이전 세대와 달리 공적, 사적으로 ‘탈가치’의 경향성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치를 추구할 “심리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¹ 생존과 경쟁이 삶의 디플트가 되어버린 시대를 사느라 소진되어 버려 공적, 사적 가치를 추구할 내적 여유와 여력이 없는 청년세대가 종교적 가치는 추구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 좌절, 질시, 체념, 분노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오늘의 청년은 종교적 초월에 기대어 평안을 얻는 대신 온라인 세계에서 “투쟁적”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종교적 성인들도 한때는 2030세대였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고타마 싯다르타는 29세에 출가한 후 목숨 건 수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이룬 봇다가 되었고,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도 나이 30 무렵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무함마드도 청년 시절의 치열한 영적 분투를 거쳐 나이 40에 히라산에서 신비 체험을 하고 이슬람의 문을 열었다. 이처럼 세계의 종교가 청년세대 성인(聖人)들의 깨달음과 가르침 덕분에 생겨나고 생명을 이어온 것을 생각하면, 이 시대 2030세대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종교를 고갈

1 임명묵, 『K를 생각한다 :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사이드웨이, 2021), 2장, 전자책

시키는 근본 위기인지도 모른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청년 지도자’, ‘청년 성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의 토양을 새로 갈아엎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내부의 인식 전환과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2030세대를 ‘미전도종족’으로 대상화하거나 ‘차세대’, ‘미래세대’로 규정하며 리더십의 부여를 유예하지 말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내일이 아닌 오늘의 교회 안에서 ‘청년 리더십’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교회 리더십의 성서적 모델은 ‘은사’다. 초대교회에서 다양한 은사의 리더십이 실현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 리더십도 다른 노년 리더십, 중장년 리더십, 여성 리더십, 소수자 리더십 등과 함께 평등하게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단 총회의 총대 절대다수가 ‘60대 이상 남성’들인 현실이 계속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2021년 독일복음교회(EKD)는 25살 청년여성 아나-니콜 하인리히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상징적 배려가 아니다. 김교신과 함석헌이 『성서조선』을 창간하여 식민지 조선교회에 변화와 부활의 바람을 일으켰을 때 나이가 27세였고, 마틴 루터 킹이 역사적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이끌었을 때 나이가 26세였다. 그들의 예언자적 창의성도 놀랍지만 젊은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른 그 시대의 교회가 더 놀랍다.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청년문제의 해결 주체는 청년이며,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전적인 신뢰와 응원이다.

3. 사회의 요구 : 종교의 공공성

종교 관련 뉴스가 ‘문화면’보다 ‘사회면’에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은 종교가 ‘사회문제’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종교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민사회는 더이상 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한국갤럽 종교 조사 결과 중 개신교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이다.

종교의 사회적 신뢰도 저하는 최근의 여러 다른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020년 6월 시사IN과 KBS가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지수는 -46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56에 이어 바닥에서 두 번째였다. 이 조사에는 종교별 통계가 따로 없었지만, 코로나 시기 내내 지속된 개신교를 향한 사회적 불신과 반감을 감안하면 개신교 때문에 종교의 전체 평균이 낮아졌을 것이 분명하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증감에 대한 인식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984년 이후 처음으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의견이

바뀌었다.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1980년대에는 70%였는데, 2014년에는 47%, 그리고 이번에는 18%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비종교인의 압도적 다수인 82%가 종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2021년 1월 29일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음’이 28%, ‘전혀 신뢰하지 않음’이 48%로, 전체적 불신 비율이 76%로 나타났다. 게다가 비개신교인의 개신교 신뢰도는 9%에 불과하다.²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하락 정도가 몰락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개신교인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개신교인의 비율이 2014년 59%에서 2021년 26%로 크게 떨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개신교인의 응답은 2014년 19%에서 2021년 28%로 올라갔다. 이는 개신교인 스스로도 개신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는 뭘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더 심각한 문제는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호감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 인이야 당연히 자신의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을 것이므로 비종교인의 종교 인식이 중요 한데,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는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 순이다. 안타깝게 도 오늘의 개신교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비호감 종교가 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교 자체에 호감을 갖지 않는 응답자가 61%라는 사실이다. 종교에 대한 비호감 정도도 2004년 33%, 2014년 46%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에 대한 비호감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마찬가지로 청년세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20대 56%, 30대 40%로) 점이다.

사실 최근 한국의 비종교인이 한국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해 드러내는 감정은 단순히 비호감이라기보다는 ‘반감’에 더 가까워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교회세습, 성범죄, 재정비리, 극우세력화 등 개신교 집단이 일으킨 교회 안팎의 문제들 때문에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보인 반사회적 행태

2 목회데이터연구소, 『Numbers』, 82호(2021.1.29.). 3.

는 교회에 대한 비호감을 반감으로 실망을 절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신뢰의 추락은 기대의 추락이기도 하다. 오늘의 사회가 교회에 바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대윤리가 아니라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최소윤리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사회의 반감과 절망을 실감하면서 개신교 내부에서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보적 교회들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에 대한 기여를 통해 사회적 공공성을 이미 실현해 온 역사적 경험이 있지만, 흥미롭게도,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과 책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보수교회들도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이 지난해 말 실시한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 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에서 “자기교회 중심에서 지역사회 섬기는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항목에 목회자의 95.3%, 평신도의 80.2%가 긍정을 나타냈다. 이처럼 보수 개신교도 사회적 공공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교회가 고통스럽게 얻은 소중한 교훈이다.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 ‘좋은 신자’는 ‘좋은 시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지성’이다. 그것은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성서의 메시지와 신학적 사유를 통해 성찰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57%에 이른다. 2014년에 80%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지만, 코로나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재난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일요일마다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 참석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아무튼, 가나안 신자 현상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교인 수가 줄었다 해도, 여전히 주일마다 수많은 온·오프라인 교회에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예배에서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복음에 비추어 성찰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이어진다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사회도 변화될 것이다.

맺는말 : 재난 속에서 ‘새롭게 고치는(改新)’ 교회

탈종교화는 종교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정적 조건이다. 탁한 물밑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 위로 꽂꽃한 줄기와 유연한 잎을 올려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蓮)처

럼, 부정적 조건 덕분에 개신교도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제약과 한계가 교회의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개신교는 억압적인 것에 저항(Protestant)하며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개혁(Reformation)하면서 시작했다. 따라서 개신교가 권위주의적 제도에 저항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저항-개혁 기원을 망각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개신교의 에토스는 시대마다 자신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진전되고 팬데믹 상황에도 적응하게 되면서 개신교 목사들과 평신도들은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걱정하며 묻는다. 재난이 끝나면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까? 교회 재정은 회복될 수 있을까? 교회 구조와 예배 문화는 어떻게 달라질까? 교회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며 예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현재적 경험으로부터 더 철저히 배워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가르쳐준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진리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다”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며 방역과 치료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들과 방역 종사자들, 시민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애쓰는 생산과 유통 노동자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욕망을 절제하는 시민들, 그들의 상호돌봄과 사랑 덕분에 재난 속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교회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재난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 돌보고,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소수자들을 보호하며 사랑하고, 곤경에 처한 자매교회들을 도와야 한다. 그럴 때 ‘재난 이후’의 교회는 사회적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재난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기사연 소식

기사연 TV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어쩌다 대중문화까지

문화 너머의 문화를 읽고 토론하는 **[어쩌다대중문화까지]**를 시작합니다.

▶ **기사연TV**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려요!



Ep.1_1 좀비물의 역사 (9/2)



Ep.1_1 K좀비의 사회학 (9/9)



Ep.2 레트로 vs. 뉴트로 (9/16)

Ep.3 국뽕에 취한다? (9/23) Ep.4 다크 히어로 (9/30)

Ep.5_1 부캐입니다만 (10/7) Ep.5_2 부캐라고요? (10/14)

Ep.6_1 오디션 열풍 (10/21) Ep.6_2 오디션 사회, 공정한가 (10/28)

문화 너머의 문화를 읽고 토론하는 **[어쩌다대중문화까지]**를 시작합니다.

#강도, #민민, #생권 세 남자가 다양한 대중문화현상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기사연TV에서 매주 목요일 12시에 공개합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www.youtube.com/c/기사연TV

도서안내

본 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 연구서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의 사회인식〉이 출간되었습니다. 각 분야에 관한 통계 및 심층 분석과 이에 대한 신학적 적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획 김상덕 송진순 신익상 이민형 이상철 지음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의 사회인식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획
김상덕 출판인 : 신익상 저작인 : 이상철 저음



공간 이제

본 연구원 건물 지하1층 〈공간이제〉는 기독교 단체 및 지역사회의 모임을 위한 공간, 다양한 목소리가 공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과 영상회의, 촬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관문의: 02-312-3317



기사연 후원

기사연의 지속적 연구와 발전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거나 정기후원을 약정해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코로나19와 한국 교회의 사회인식〉 책과 기사연 정기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25-15382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정기후원신청: jpic.org/support

기사연리포트 통권 17호

발행일 2021년 9월 6일

발행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02_312_3317
www.jpic.org
cisjd@jpic.org